

‘손바닥책’으로 출판계 불황 넘는다

미니북으로 유통 다각화 꾀하는 출판사들



출판계 불황타개의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되는 다양한 장르의 미니북들.

‘손바닥책’ ‘포켓북’이라 불리는 미니북 출간 종수가 점점 늘고 있다. 그동안 발간된 미니북들은 주로 종교나 아동서, 학습참고서나 회화교재 등이었는데, 최근에는 수필·잠언·소설·시 등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앞다퉈 쏟아지고 있다. 미니북은 장기화되는 경기불황으로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출판계에 불황타개의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의 비결은 차별화된 판매전략

샘터사는 미니북 덕을 톡톡히 본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법정, 이해인, 피천득 등 내로라하는 문필가들의 글을 모아 <주머니 속 샘터 명작> 시리즈를 선보였고, 올해는 <생각하는 동화(전5권)> 시리즈를 펴내 미니북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시리즈를 기획한 오연조 기획출판부장은 “<주머니 속 샘터 명작> 시리즈가 발간 7개월도 못돼 15만부 가량 팔려 이번 시리즈도 기획하게 됐다”며, 미니북의 성공요인을 “부담 없는 가격과 휴대 간편한 크기, 작은 책만의 아기자기함” 등에서 찾고 있다. 여기에 젊은 층의 취향에 맞춘 마케팅과 기존의 책들과 확실한 차별화를 꾀한

판매전략이 뒷받침됐다. 오부장은 또 “미니북은 기존 단행본 정가의 절반 수준인 3천원 선 내외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구매자들은 약간의 관심만 있으면 쉽게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 미니북을 주로 계산대 옆에 진열하는 것도 마지막까지 구매자의 시선을 붙잡아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며 진열과 유통의 차별화를 강조한다.

샘터사의 미니북 성공 뒤에는 남다른 차별화 전략이 있다. 우선 독자층의 확대를 위해 일반 서점뿐만 아니라, 편의점으로 눈을 돌려 유통의 다각화를 꾀했다. 미니북 2차분인 <생각하는 동화> 시리즈부터는 날권 판매와 세트 판매를 병행해 선물용 상품으로 지하철 가판대나 문구사 등에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이 시리즈의 판매에 발맞춰 ‘플래시 애니메이션 및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을 펼쳐 영상매체에 친숙한 젊은 층에 좀더 가까이 다가서려 노력하고 있다.

민족사는 <작은 경전> <온고지신> 시리즈를 비롯해 가장 많은 종수의 미니북을 펴냈다. 윤창화 대표는 “불교경전을 대중화하자는 취지로 기획했다. 미니북이 과연 책으로 독자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호응이 좋았다. 대략 권당 1만부 정도 팔렸고, 먼저 나온 <법구경>은 8쇄를 찍었다. 판형이 1/4로 축소돼 가독성을 방해하지 않는 디자인에 특별히 신경 썼다. 아직은 명언집·고전·수필 등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 분야를 넓혀갈 생각”이라고 말한다. 민족사는 주로 ‘불교경전류’인 책의 특성을 살려 서점뿐 아니라 전국유명

사찰까지도 판매망을 넓혀 왔다.

동쪽나라는 1998년 법정의 수필집 <산에는 꽃이 피네>(류시화 엮음)를 미니북으로 펴내면서 미니북 시장의 본격적인 장을 마련했다. 김형균 대표는 “신국판의 1/4정도 크기라 판형 짜기가 가장 어려웠다. 워낙 작은 책이라 두권씩 묶어 판을 짜고, 인쇄가 끝난 후 잘라내는 방식으로 제작 했다. 제본도 수작업이 많아 책은 작지만 다른 책보다 두배 정도 공을 들였다”며 제작 당시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동쪽나라는 ‘미니북 붐’을 일군 주역이지만, 현재까지 펴낸 미니북은 <산에는 꽃이 피네>가 유일하다. 이에 대해 김대표는 “영리보다 가격부담을 줄여 독자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하고 싶었다. 앞으로도 미니북의 성격에 맞는 좋은 책들을 펴낼 계획”이라고 말한다.

영업자의 자질, 서점과의 협조도 필요해

샘터사와 동쪽나라가 먼저 발간됐던 단행본을 다시 샘플링해 성공한 경우라면 전망출판사는 과감하게 신작으로 미니북 시장에 뛰어 들었다. 7.5cm×12.5cm 크기로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가게 제작된 <작은 시집> 시리즈는 모두 신작시집이다. 서정원 대표는 “기존의 시집들은 판형이 고정돼 있고, 분량도 많다. 시가 다른 장르에 비해 독자층이 얇은 점을 감안해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며 기획의도를 밝혔다. 이 시리즈는 대략 35~40편의 시를 실었으며, 일반책과 달리 위쪽으로 넘겨보도록 상철로 제본했다.

오늘의책은 올해 <어린왕자>(생 텍쥐페리, 나송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책>(윤영) 등 모두 9종의 미니북을 펴내며 의욕적으로 미니북 시장에 합류했다. 박경애 과장은 “미니북은 독서시장의 틈새를 공략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영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직은 매대를 출판사에서 제공하면서 일선 서점과 거래를 트지만, 서점쪽에선 재고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별로 반기지 않는다”며 영업에 따른 어려움을 밝혔다. —박옥순 기자